

都市公園 利用者의 目的地 選定에 關한 研究*

—光州市를 對象으로—

洪性權

建國大學校 農科大學 園藝學科

A Study on Destination Choice of Urban Park Users in Kwangju

Hong, Sung-Kwon

Dept. of Horticulture, College of Agriculture, Kon-Kuk University

ABSTRACT

To understand and predict destination choice behavior for urban parks, two hypotheses, which are based on extended Fishbein model, were proposed and tested in Kwangju. Data was analyzed by the citizens of Kwangju and by target markets segmented by demographic variables.

Analysis by the citizens of Kwangju showed that postulated hypotheses are true. However, they were partially true in the other cases: it was a general tendency that suggested model applied well in the high-involvement product.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sex was the most useful to understand park choice behavior.

Park management directions were suggested, and several future research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 서 론

한 도시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공원들이 시민 전체를 市場으로 서로 경쟁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시민들이 특정공원을 목적으로 결정하는가?”와 “결정된 목적지를 실제로 방문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예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i) 특정공원의 방문 결정이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도시공원중에서 개인이 여러 요인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만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므로(Westphal and Lieber, 1986) 이 과정의 이해는 도시공원이란 商品(Product)의 商標(Brand, 개개의 도시공원)가 선정되는 과정의 이해를 의미하여 마케팅개념을 이용한 공원관리 기법이 방문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ii) 방문행동의 예측은 공원 관리자에게 “잠재적 이용자가 특정공원을 방문할 확율이 얼마나 되겠는가?”의 해답을

*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의 1990년도 研究費 支援에 의해 수행되었음.

제시하여 일정 시점의 수요 예측을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공원 연구에서의 목적지 선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나 Macro scale의 관광지, 州立 및 國立公園 수준에서의 목적지 선정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상지 内外의 물리적 변수를 주로 logit분석에 의해 추정하고 있어(Haider and Ewing, 1990; Fesenmaier, 1988) (i)意圖(Intention)변수가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ii)목적지가 선정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의 수요추정은 (i)기존의 모델(e.g. gravity model)에 특정공원의 과거 이용객수, 공원 이용을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을 변수화하여 추정하거나(交通啓發研究院, 1988), (ii)특정공원의 최대일출과 회전율의 측정 결과를 기존 모델에 대입시키는 방법으로 大別된다(日本觀光協會, 1986). 그러나 이들 연구방법은 (i)공원 이용객수에 대한 과거 자료가 없는 공원에서는 적용이 안되며, (ii)1년 또는 계절 단위의 이용객수가 추정되어 일정 시점의 이용객수의 추정은 어렵다. 도시공원에서 recreational program과 같은 "software"의 중요성이 물리적 시설 같은 "hardware"보다 중요성이 더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Hong, 1988) 도시공원에서의 수요 추정시 평균적인 이용자의 추계도 중요하지만 특정 시점의 수요 예측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Fishbein(1967)이 제시한 論理的 行爲理論(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도시공원의 목적지 선정 연구에 적용하여 아래의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i)경쟁적 위치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전체시민들 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로 분류한 目的市場別로 선택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ii)각 공원이 실제로 선택될 확율을 추정하여 Fishbein 理論이 도시공원의 목적지 선정 연구와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 (1) 특정 도시공원이 실제로 방문될 확율은 그 공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이용자의 방문 의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 (2) 특정 도시공원의 방문의도는 그 공원방문에 대하여 가지는 잠재적 이용자의 태도(Attitude)

와 주관적규범(Subjective Norm)의 영향으로 형성된다.

II. 용어의 정의 및 연구대상지

1. 용어의 정의

- (1) 都市公園: 都市公園法의 정의 및 세분에 의미가 부합하는 공원 및 유원지 중 지구공원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 (2) 意圖(Intention): 특정행동이 수행될 主觀的 確率
- (3) 態度(Attitude): 특정한 대안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持續的이며 學習된 先有傾向(Predisposition)
- (4) 主觀的規範(Subjective Norm):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특정행동의 실천에 대한 사회적 기대
- (5) 信念(Belief): 개인이 事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主觀的인 概念
- (6) 準據集團(Reference Group): 개인이 自己評價와 態度形成을 위한 準據體系로 받아들이는 집단

2. 연구 대상지

성격이 뚜렷히 다르다고 판단되는 광주시의 무등산 중봉, 서석대 또는 입석대지역(중봉지역), 중심사지역, 지산유원지, 어린이대공원, 사직공원을 연구대상지로 한다. 중봉지역, 중심사지역 및 지산유원지는 모두 무등산에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개개의 도시공원으로 취급한다.

- (1) 중봉, 서석대 또는 입석대지역(중봉지역)
이들 지역은 무등산의 경승지로 주로 등산을 위한 이용객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 (2) 중심사지역
무등산 기슭의 계곡에 위치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유원지로, 중심사와 주변의 많은 음식점을 포함한다.
- (3) 지산유원지
기계화된 대규모의 유희시설이 주를 이루며, 보트장 및 풀장의 운동시설과 식물원 및 동물원등을 갖춘 시설지역이다.

(4) 어린이대공원

전시장, 수영장, 운동시설, 소규모의 기계화 유희시설, 시립 민속박물관등을 갖춘 광주시의 중앙공원 역할을 담당하는 공원이다.

(5) 사직공원

대부분의 지역을 특징 없는 동물원이 차지하고 있는 지구공원 성격의 공원이다.

Ⅲ. 문헌 연구

1. 論理的 行爲理論 (Theory of Reasoned Action)

기존의 도시공원 연구는 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나, 마케팅에서 보편화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 상표에 대한 구매의도가 그 상표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는 (吳와 柳, 1987 ; Assael, 1984) 의도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논리적 행위이론 (Fishbein, 1967)은 Theory of Propositional Control (Dulany, 1961)을 사회심리학적인 문제 연구를 위해 변형시킨 이론으로 그의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행동은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며,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은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Intention)를 형성하는데 그 행동의도는 태도(Attitude)요인과 주관적규범(Subjective Norm)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형성된 행동의도는 이어서 나타나는 실제행동(Overt Behavior)에 영향을 준다.” 이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B \approx I = (A_b)w_1 + (SN)w_2$$

B : 행동 I : 행동 의도

SN : 주관적규범

A_b : 행동 b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

w₁, w₂ : 추정계수(加重值)

의도는 태도 요인과 주관적규범 요인에 가중치를 곱한 回歸式의 형태로 추정한다. 이때 변수간의 상대적 중요성의 판단을 위하여 표준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가 가중치로 쓰이며, 형성된 의도으로써 실제행동을 추정하기 위하여는 두 변수간의 相關係數(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한다. 위 모델을 도시공원 목

적지 선정에 적용하면, “특정행동의 실행(특정공원의 방문)은 그가 그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특정공원의 방문의도)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의도는 그 행동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특정공원 방문에 대한 태도)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주관적규범(특정공원 방문에 대한 의사결정시 주변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논리적 행위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세분

특정행동의 이해를 위하여 Fishbein은 語意微分尺度로 측정이 가능한 태도 요인과 주관적규범 요인이 다음과 같이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1) 태도 요인

기존의 태도모델(Attitude Model)에서는 (Rosenberg, 1956 ; Fishbein, 1963) 대상물에 대해 가지는 개인의 태도를 變數化하였지만, 이 모델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변수화하였다. 즉 “공원 A”에 대한 태도가 아닌 “공원 A”의 방문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

$$A_b = \sum_{i=1}^n (b_i \times e_i)$$

b_i : 행동 B를 행함으로써 결과 i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 신념

e_i : 결과 i에 대한 평가

n : 신념의 수

이를 공원 연구에 적용시키면, A_b는 “특정공원 방문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b_i는 “특정공원의 방문시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결과 i”에 대한 신념을, e_i는 “발생될 결과 i에 대한 평가”를, n은 “예측되는 결과의 수”를 각각 의미하여 결국 A_b는 b_i와 e_i를 곱한 것의 總合이 된다.

(2) 주관적규범 요인

“대부분의 공원방문은 혼자 보다 일반적으로 가족, 이웃, 직장동료, 친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연구는(趙, 1987 ; 方, 1987 ; 洪, 1986 ; 서울市, 1985) 주관적규범이 독립변수으로써 도시공원의 목적지 선정연구에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마케팅에서는 상표 선정시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인정되고 있다(Assael, 1984 ; 홍, 1983 ; Bearden and Etzel,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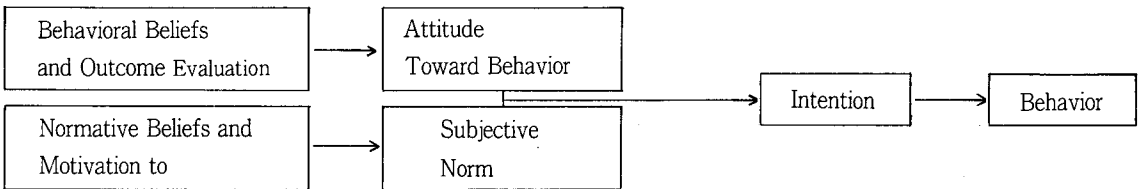
$$SN = \sum_{i=1}^n (nbi \times mi)$$

nb_i : 중요 준거집단 i가 갖고 있다고 믿는 행동 B에 대한 신념

m_i : 중요 준거집단 i의 신념에 동의하고자 하는 정도

n : 중요 준거집단의 수

이를 공원 연구에 적용시키면, SN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에 대해 갖는 특정 공원방문에 대한 기대정도”를 의미하여 “주변 사람들의 일반적인 압력”을, nb_i는 “그가 특정공원을 방문해야만 한다”에 대한 중요한 준거집단의 신념 정도를 의미하여 “중요한 준거집단의 압력”으로, m_i는 “중요한 준거집단이 갖고 있는 위의 신념에 동의하고자 하는 정도”를 각각 의미하여 SN은 nb_i와 m_i를 곱한것의 총합된다. 위의 모델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Theory of Reasoned Action

3. 관련분야의 적용 사례

도시공원 목적지 선정의 연구를 위하여 논리적 행위이론이 적용된 예는 아직 저자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마케팅에서는 제시된 모델을 기본으로 상표선정과정과 그에 따른 구매행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며(Miniard and Cohen, 1983 ; Bearden and Etzel, 1982 ; Ryan and Bonfield, 1975 ; Ajzen and Fishbein, 1972), 연구 결과 모델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Recreation분야에서는 國立 및 州立公園 및 야생지역의 관리(Anderson, 1980 ; Manfredo, 1979), jogging행태(Riddle,1980), 캠핑 행태(Young and Kent, 1985)의 연구에 Fishbein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金(1991)이 환경오염행태 연구에 이 모델을 사용하였다.

(Hong, 1988 ; Young and Kent, 1985 ; Assael, 1984 ; Unger and Kernan, 1983 ; Driver, 1977 ; Fishbein and Ajzen, 1975 ; Wilson et al., 1975 ; Ryan and Bonfield, 1975, Bonfield, 1974) 이를 바탕으로 예비설문을 작성하였다. 태도와 주관적규범에 관련된 항목들은 -3 부터 +3으로 측정하여 bipolar system의 장점(Ryan and Bonfield, 1975)을 취하였으나 주관적규범중 동의에 관련된 항목들은 1부터 7범위의 unipolar system의 의미 미분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준거집단의 영향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에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jzen and Fishbein, 1980). 예비설문에 제시된 이외의 신념의 파악을 위하여 開放型質問은 並用하였으며, 序列水準의 항목은 response set effect의 최소화를 위하여 난수표를 사용해 배치하였다.

IV. 연구 방법

1. 설문 작성 및 變數의 測定

문헌조사를 통하여 (i)공원방문시 발생될 수 있는 신념의 종류, (ii)공원 선정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준거집단, (iii)도시민을 목적지장으로 分割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파악하였으며

全南大學校 造景學科 학생 124명을 선발하여 실시한 예비조사의 결과를 SPSS로 분석하였다. 공원방문시 발생 가능한 신념은 예비조사란 특성으로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에 의한 (Johnson and Wichern, 1982)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고, eigenvalue 0. 5를 要因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여 중요한 문항이지만 본 설문에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분석 결과 9개의 요인(공원방문시 발생한다고 믿는 신념)을 결정하였

고, 개방형질문의 결과를 전문가적 판단으로 추가하여 모두 13개의 요인을 결정하였다.

본 설문에는 행동변수의 측정을 위하여 二項變數(Dichotomous Variable)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형성된 의도와 실제 공원방문과의 상관성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2. 標本數의 결정과 標本抽出

(1) 표본수의 결정

McNamara(1978)가 제시한 식을 사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정밀도는 0.05로, 광주시의 출장소 구역내 가구를 제외한 238,124가구를 study population으로 간주하였으며(光州市, 1989), 母比率로 0.5를 선택하여 384매가 결정되었다. 계산된 표본수에 회신을 90%를 적용하여 봄, 여름, 가을 각 계절당 427매를 표본수로 결정하였다.

(2) 표본추출

광주시 국민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변형된 層化集落 標本抽出(2 Stage 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 두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i)본 연구는 “형성된 의도대로 공원 방문이 이루어지는가?”의 행동 확인이 중요한 문제여서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한 후 기일이 지나 응답자에게 전화로 “설문에 작성한 대로 그 공원을 실제로 방문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ii)연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회신율의 제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區를 변수로 광주시민을 層化한 후, 公立 國民學校 通學區域別로 가구수를 재분배하여 標出할 국민학교를 선정하였다(광주시 동부 교육구청, 1990; 광주시 서부 교육구청, 1990). 이때 사립 및 국립 학교는 통학구역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광주시의 1, 6학년 학생수와 학급수를 고려한 결과 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50명이어서(광주교육통계연보, 1989) 계산된 표본수를 만족시키는 집락(국민학교)을 9개로 결정하였다. 조사대상으로 1, 6학년의 부모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국민학교 부모중에서도 가능한 여러 나이 계층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區當 할당된

집락의 수는 각 구의 가구수에 비례한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로 결정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학생수에 비례한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에 의해 선정된 국민학교에서 學級을 결정한 후(광주교육통계연보, 1989), 그 학급의 학생 부모중 한명이 설문을 작성케 하였다. 이는 야외 위락활동의 의사결정시 부부의 영향력이 균등하기 때문이었다(Davis and Rigaux, 1974).

3. 설문의 배포 및 회수

추출된 학교의 학급 담임선생님을 방문하여 설문의 배포 및 수집을 의뢰하였다. (i)여름에는 국민학교 여름방학 이전인 1990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 까지 (ii)가을에는 추석 蓮休 이전인 1990년 9월 24일부터 29일 까지 (iii)봄에는 1991년 4월 22일부터 24일 까지 설문 배포를 의뢰한 후 수집하였으며, 설문에 작성한 대로 공원을 방문하였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응답자 개인에게 (i)여름방학이 끝난 8월 28일부터 8월 31일 까지, (ii)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iii)어린이 날이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 까지 각각 通話하였다. 통화 시기를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연휴를 기간중에 설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방문기회를 많이 부여하며, 도시공원의 주된 방문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함이었다(趙 1990; 구, 1986). 여름에는 총 414매중 383매가, 가을에는 총 464매중 387매가, 봄에는 총 466매중 430가 회수되어 계절별 회신율은 각각 92.5%, 83.4%,와 92.3%이며 총 회신율은 89.3%이었다.

4. 분석 방법

(1) 자료의 변형

다수의 응답자가 무등산의 중봉지역을 방문하고자 한다하여(75.6%) 심한 불균형을 이루었다. 이와같은 자료는 自由度의 큰 차이로 공원별 모델 검증시 결과가 부정확할 우려가 높았으므로 (i)계절에 따른 공원별 분석은 제외되었고 (ii)공원별 분석시 중봉지역의 자료는 봄철에 수집된 것만으로, 나머지 4개의 연구 대상지는 3계절 동안 수집된 자

료를 합하여 분석하였고 (iii) 광주시민을 모집단으로 분석은 분할 자료를 사용하였다.

(2) Weighted Least Square (WLS)의 사용

일부의 연구(金, 1991; Young and Kent; 1985; Wicker, 1969)에서는 행동과 의도간의 상관관계 추정에 point-biserial 상관계수, Kendall's Tau, Gamma 또는 ordinary least square(OLS)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WLS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행동의 추정이 본 연구 목적중의 하나이어서 OLS의 사용도 가능하지만 이를 사용하면, (i) error term이 정규 분포를 이루지 못하여 回歸分析의 가정에 위배되며 (ii) 결과는 不偏推定量이나 종속변수의 variance를 최소화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Neter et. al, 1983).

(3) 응답자가 공원방문시 예상하는 결과(bi)의 공원별 분류

신념의 종류(b)가 공원별로 다르므로 공원별 분석시 사용할 항목들은 validity test 개념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즉, 모든 항목의 합산 값과 각 항목 점수간의 상관성 분석을 하여 유의성이 없는 것은 제거하였다. 이때 합산된 값에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의 점수가 더해져서 항목들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산된 값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의 점수를 뺀 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McIver and Carmines, 1981).

(4) 태도 요인과 주관적규범 요인간의 유의수준

태도 요인과 주관적규범 요인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시 이 두개의 주요 요인간에 多共線性(Multicollinearity)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으므로 (Miniard and Cohen, 1983; Ryan and Bonfiield, 1975; Fishbein and Ajzen, 1975), 본 연구에서는 $p=0.1$ 을 유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V. 연구 결과

1. 광주시민을 모집단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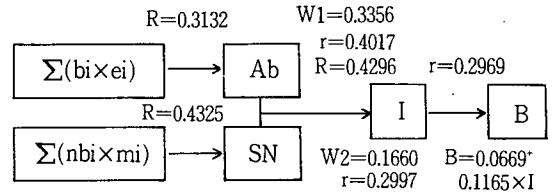
광주시민들이 특정공원을 선정하는 과정과 실제 방문확률의 추정을 위하여 분할 자료만을 사용하

였는데 이는 자료의 무작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분석 결과 형성된 특정공원의 방문의도(I)와 실제방문(B)과의 상관계수(r)는 $0.29693(p=0.0000)$ 이며, 회귀식은 $B=0.6693 + 0.11648I \times$ 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을 사용한 타 분야 결과와 비교하면 r의 값이 낮으나 (i) 분할 자료는 특정공원의 방문.與否가 약 20일도안 결정된 것으로, 형성된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되면(이 기간중 전체 응답자의 48.9%만이 광주시내의 언던 도시공원이라도 방문), (ii) 도시공원이란 상품은 행동(실제방문)의 불이행/이행시 개인이 받는 벌/보상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으며, (iii) 전체 응답자의 약 76%가 중봉지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이들의 의도는 과잉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변수간의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무등산의 서석대및 입석대지역은 광주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나 약 23년동안 등산이 금지되었다가 설문조사 직前인 1991년 5월에 해제되어 이는 "예기치 않았던 행동결과와/또는 규범적 기대는 의도와 행동간의 상관 관계를 낮춘다(Ajzen and Fishbein, 1972)"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도와 행동간 관계는 계산된 회귀식에 의하여, 예를 들면, 특정공원의 방문의도(I) 값이 3인 경우 실제방문(B) 값이 0.416로써 선정한 공원을 실제로 방문할 확률이 41.6%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정공원의 방문의도(I) 형성은 태도 요인(A_b)과 주관적규범 요인(SN)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명되었다($R=0.42959$). 세분하면, I에 대한 A_b 와 SN의 상관관계는 각각 $r=0.4017(p=0.0000)$ 과 $r=0.2997(p=0.0000)$ 로써 높은 유의수준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가중치는 $0.3357(p=0.0000)$ 와 $0.16598(p=0.0001)$ 로 특정공원의 방문에 대한 의도의 형성은 공원방문 자체에 대해 가지는 개인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특정공원의 방문 기대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하였던 결과로, 자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봉지역 자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표 1) (그림 3). A_b 와 $\sum(b_i \times e_i)$, SN과 $\sum(n_{bi} \times m_i)$ 의 상관성(R)은 각각 $0.31322(p=0.0000)$ 과 $0.43252(p=0.0000)$ 이며 높은 수준의 유의성이 검증되어 A_b 와 SN은 각각 $\sum(b_i \times e_i)$ 와 $\sum(n_{bi} \times$

mi)에 의해 형성됨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Fishbein 모델을 사용하여 제시한 가설이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증명되었다[그림 2]. 즉, 특정공원의 실제방문은 그 공원방문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규범에 의해 형성되는 의도에 영향을 받으며, 태도요인과 주관적규범 요인은 특정공원을 방문함으로서 나타날 것으로 믿는 결과에 대한 신념과 그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곁한 총합으로, 중요한 준거집단들이 갖고 있다고 믿는 특정공원 방문에 대한 신념과 중요 준거집단들의 믿음에 동의하고자 하는 정도를 곁한 총합으로 각각 형성됨이 밝혀졌다.



[그림 2] 광주시 도시공원 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2. 공원별 분석

연구대상지중 상대적으로 high-involvement product인 중봉지역 및 중심사지역에서 제시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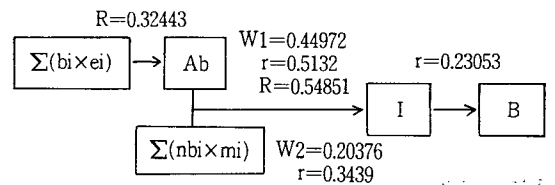
[표-1] 공원별 공원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공원	B와 I			I와 (Ab+SN)			I와 Ab	I와 SN	Ab와 $\sum bi \times ei$	SN과 $\sum nbi \times mi$
	r	RC		R	Beta		r	r	R	R
		C	I		Ab	SN				
중봉지역	0.258**	0.014 ^{ns}	0.086**	0.476**	0.388**	0.169*	0.450**	0.311**	0.313**	0.374**
중심사지역	0.364**	0.119**	0.099**	0.445**	0.216*	0.278**	0.387**	0.411**	0.408**	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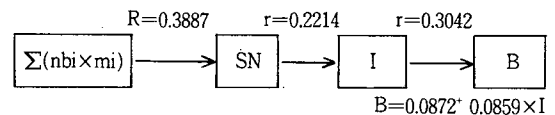
r ; Corelation Coefficient RC ; Regression Coefficient
 R ;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Beta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C : Constant, I : Intention ** : p<0.01 * : 0.05 ns : not significant

설이 검증되었다[표-1]. 중봉지역에서 모델의 예측력이 약한 것은 과잉 평가된 이 지역의 방문의도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태도 요인이 주관적규범 요인보다 방문의도의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이 지역이 갖는 광주시의 상징성과 방문시 예상되는 신념의 다양성[표-5]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심사지역은 유원지의 성격을 띠어 주관적규범이 의도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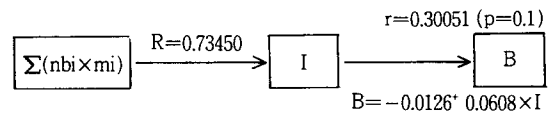
나머지 3개 공원은 태도 요인 또는 주관적규범 요인이 의도변수와 유의성이 낮아 (p>0.1), Ab, (bi × ei), SN와 $\sum(nbi \times mi)$ 를 독립변수로 forward selection한 결과 방문의도가 주변의 중요한 준거집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형성됨이 밝혀져 가설의 일부만이 검증되었다[그림 3]. 자산유원지, 어린이대공원, 사직공원은 주로 어린이와의 동행이 예상되는 곳이어서 나타난 결과로 해



어린이 대공원



자산유원지



사직공원

[그림 3] 공원별 공원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석되며, 대상지중 가장 low-involvement product 인 사직공원은 의도와 행동간에 유의성이 없어 ($p=0.1$) 방문자수의 예측이 곤란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원별 분석의 경우 high-involvement product인 중봉지역 및 중심사지역에서는 제시된 가설이 증명되었으나, 상대적으로 low-involvement product인 나머지 공원에서는 제시된 가설중 일부만이 증명되었다. 이는 제시된 모델이 high-involvement product의 범주의 도시공원 목적지 선정연구에 잘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직공원의 경우 의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에 유의성이 없는 것은 제시된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인구통계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s)에 의한 공원별 분석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로 세분하기에 자료수가 부족한 지산유원지, 사직공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의 중요 목적이 의도와 행동간 관계이므로 두 변수간 유의성이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性別 분석

가장 high-involvement product인 중봉지역에서만 제시된 가설이 모두 검증되었고 나머지 공원들은 일부만이 검증되었다. 중봉지역의 경우 공원별 분석결과와 같이 의도의 형성에 태도 요인이

[표-2] 性別 중봉지역 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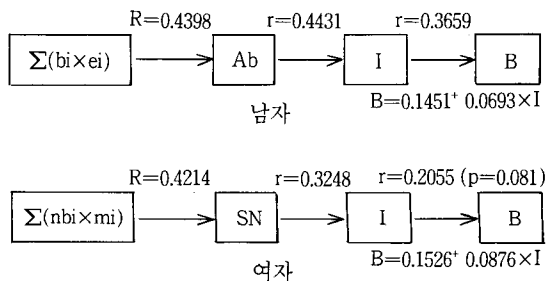
성별	B와 I		I와 (Ab+SN)		I와 Ab	I와 SN	Ab와 $\sum bi \times ei$	SN과 $\sum nbi \times mi$		
	r	RC		R	Beta		R	R		
		C	I		Ab	SN				
남자	0.254**	0.062 ^{ns}	0.065**	0.552**	0.470**	0.178*	0.526**	0.178**	0.244**	0.393**
여자	0.384**	-0.0018 ^{ns}	0.099**	0.399**	0.296**	0.173 ^a	0.367**	0.295**	0.381**	0.380**

r : Correlation Coefficient RC : Regression Coefficient
 R :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Beta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C : Constant I : Intention ** : $p < 0.01$ * : 0.05 ns : not significant
 Sex Ratio : Male(51.2%), Female(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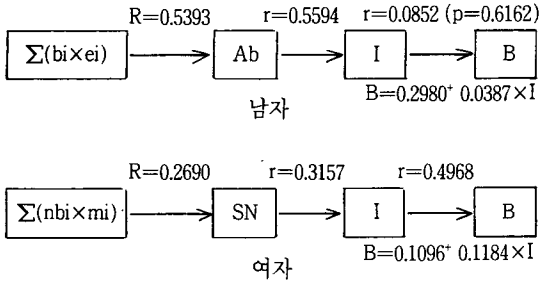
주관적규범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태도 요인에 크게 좌우되었는데 [표-2], b와 ei의 성별 차이 [표-5]가 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여자인 경우 의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가 남자보다 높은 것은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 (Family Decision Making)에서, 특히 high-involvement product인 경우에, 여자는 (i) 정보 수집가(Gatekeeper)로써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ii)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의사결정자로써의 역할과 구매행동을 실시하는 구매자로써의 역할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Haley, 1975) 현실이 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심사와 어린이대공원의 방문의도는 공통적으로 남자인 경우 그 공원이 방문에 대한 태도에 의

해, 여자는 주변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형성됨을 보여 주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방문행동의 예측은 중심사지역인 경우 남자에 한하여, 어린이대공원은 여자에 한하여 가능한데 [그림 4, 그림 5] 중심사지역의 방문은 보통 가족, 친구, 직장동료등



[그림 4] 性別 중심사지역 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그림 5] 性別 어린이대공원 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으로 여자에 비해 많으며, 어린이대공원은 보통 어린이와 엄마들이 방문하게 되므로 성별 공원의 예측력 유무가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2) 소득과 학력에 의한 분석

Cumulative square root of the frequency method(Scheaffer et. al, 1986)로 전체 응답자를 분류하여 (i)월 가구소득이 70만원 미만을 저소득층(44.1%)으로, 70만원 이상을 고소득층(55.9%)으로, (ii)고등학교 미만을 저학력층(24.2%)으로, 고등학교 이상을 고학력층(75.8%)으로 결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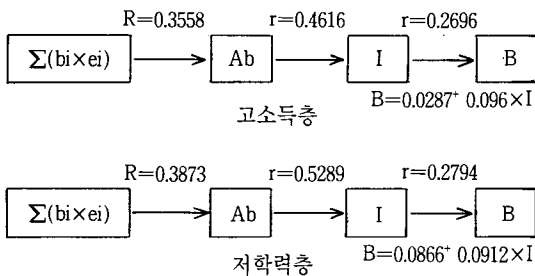
(2-1) 중봉지역

소득및 학력별 분석 결과 중봉지역의 경우 제시된 가설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으며, 공원별및 성구름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기회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분석 결과와 같이 태도 요인이 의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3, 그림 6]. 이는 중봉지역과 같이 high-involvement product인 공원에 제시된 모델이 잘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High-involvement product인 지역임에도 축소된 모델 형태를 갖게 된 부분적인 이유는 “前述한 바와 같이 무등산의 서석대및 입석대지역이 광주시의 상징과 같은 곳이면서도 23년 동안 입산금지 되었다가 설문조사 직전에 입산이 허용되어 이 지역 방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다른 사람(준거집단)이 전하는 정보를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며(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38.1세), 그 정보를 얻은 집단은 응답자의 기억속에서 사라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Miniard and Cohen, 1983)”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3] 저소득 및 고학력 층의 중봉지역 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구분	B와 I		I와 (Ab+SN)		I와 Ab	I와 SN	Ab와 Σbi×ei	SN과 Σnbi×mi		
	r	RC		R	Beta		R	R		
		C	I		Ab	SN				
저소득	0.280**	-0.004 ^{ns}	0.065**	0.587**	0.441**	0.279*	0.523**	0.409**	0.259*	0.409**
고학력	0.261**	0.013 ^{ns}	0.078**	0.513*	0.418**	0.172*	0.488**	0.343**	0.426**	0.421**

r : Correlation Coefficient RC : Regression Coefficient
R :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Beta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C : Constant I : Intention ** : p<0.01 * : 0.05 ns : not significant



[그림 6] 변수별 중봉지역의 선정시 변수간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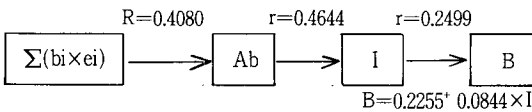
(2-2) 중심사지역 및 어린이대공원

중심사지역의 분석 결과 가설은 저소득층에서만 검증되었다[표-4].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경제력과 이동성이 낮아 방문지에 대한 의도 형성을 광주시로 국한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중심사지역의 방문 예측을 가능케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소득층인 경우는 보다 우월한 상품성을 지닌 광주시외의 다른 유원지 방문 확률이 높아 중심사지역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된다

[표-4] 저소득층의 중심사지역 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B와 I			I와 (Ab+SN)			I와 Ab	I와 SN	Ab와 $\sum bi \times ei$	SN과 $\sum nb_i \times m_i$
r	RC		R	Beta		r	r	R	R
	C	I		Ab	SN				
0.170**	0.173 ^{ns}	0.071**	0.487**	0.223 ^a	0.343*	0.380**	0.445**	0.199 ^{ns}	0.497**

r ; Correlation Coefficient RC ; Regression Coefficient
 R ;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Beta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C : Constant I : Intention ** : p<0.01 * : 0.05 ns : not significant



[그림 7] 고학력층의 어린이대공원 선정시 변수간의 관계

(Iso - Ahola, 1986).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ei)에 있어 소득층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제공된다고 믿는 수준에는(bi)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표-5].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고학력층에 한하여 실제방문과 의도와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는데 [그림 7], 이는 공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학력층의 선호 경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5].

이상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의한 공원별 분석의 경우 제시된 가설중 일부만이 검증되었다. 전반적으로 중봉지역과 같은 high-involvement product에서 제시된 모델로 목적지가 선정되는 과정과 방문행동의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성별로 목적시장을 분할하는 것이 공원의 목적지 선정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Young and Kent, 1985).

4. 공원별 인구통계학적 변수간의 신념(b)과 신념 평가(e)의 평균값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모든 공원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b값이 e값보다 작은 것이 태도요인의 세부분석 결과의 큰 특징이다[표-5]. 이는 공원 방문에 대해 갖는 잠재적 이용자들의 기대에 각 공원은 부응치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대부분의 e값은 남자, 고소득층 및 고학력

층이 여자, 저소득층 및 저학력층 보다 각각 더 높았는데 “신념의 형성과 변경은 마케팅 전략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일단 신념이 형성되거나 변경되면, 태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 태도의 변화는 의도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信念構造(Belief Structure)를 변화시키는 일이다”라는 뭇와柳(1987)의 주장과 같이, 공원별로 나타난 e의 차이는 “目的市場別로 이미 형성된 신념중 어떤것을 선택적으로 유지시키며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방침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중심사지역과 어린이대공원은 변수간에 b의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중봉지역은 변수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표-5]. 이에 대한 이유로 중봉지역은 (i)오래동안 입산금지 지역이었고 (ii)다른 지역에 비하여 high-involvement product이므로 응답자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정보처리과정(Infomation Processing)을 통하여 응답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나머지 두 공원은 잘 알려진 광주시내의 공원으로 응답자는 설문작성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5. 공원별 인구통계학적 변수간의 규범적신념(nb)과 동의정도(m) 평균값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의한 각 공원의 nb와 m의 분석 결과 [표-6] 가족이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대공원인 경우 가족들에 대한 nb와 m값이 특히 높은 것은 이 지역이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이어서 가족 중에서도 어린이들

[표-5] 인구통계학적 변수간의 b_i 와 e_i 평균값

항목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b_i		e_i		b_i		e_i		b_i		e_i	
	남	여	남	여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1 ⁽¹⁾	1.61	1.57	1.82	1.79	1.69	1.48	1.96	1.58	1.67	1.37	1.95	1.39
2	-0.70	-0.54	0.40	0.22	-0.52	-0.84	0.37	0.31	-0.39	-1.50	0.37	0.12
3	1.31	1.20	2.02	1.95	1.31	1.18	2.10	1.84	1.33	1.17	2.13	1.52
4	2.18	2.22	2.67	2.77	2.19	2.21	2.72	2.70	2.26	2.00	2.72	2.66
5	-1.57	-1.63	-0.85	-0.63	-1.63	-1.48	-0.62	-0.99	-1.54	-1.72	-0.71	-0.86
6	1.27	0.90	2.51	2.69	1.05	1.15	2.57	2.61	1.07	1.16	2.61	2.52
7	1.48	1.36	2.20	2.39	1.46	1.41	2.31	2.30	1.47	1.38	2.31	2.22
8	1.30	1.43	2.52	2.54	1.34	1.41	2.54	2.53	1.28	1.72	2.50	2.60
9	1.85	1.99	2.43	2.64	1.94	1.91	2.60	2.45	1.93	1.84	2.57	2.34
10	-0.59	-0.38	2.15	2.35	-0.40	-0.58	2.33	2.18	-0.38	-0.84	2.29	2.08
11	0.69	0.61	2.26	2.27	0.64	0.66	2.23	2.33	0.70	0.59	2.29	2.16
12	-0.15	-0.26	1.89	2.16	-0.23	-0.16	2.07	2.04	-0.08	-0.61	2.07	1.82
13	0.72	0.07	1.92	1.52	0.46	0.33	1.72	1.80	0.40	0.55	1.73	1.71
1 ⁽²⁾	1.18	1.21	1.50	1.36	1.39	1.00	1.50	1.25	1.25	1.07	1.49	1.21
3	0.61	0.96	1.41	1.49	0.84	0.78	1.63	1.31	0.08	0.90	1.49	1.55
6	0.73	0.87	2.28	2.34	0.91	0.72	2.65	2.02	0.88	0.62	2.36	2.28
7	0.98	0.86	1.61	1.80	1.02	0.82	1.98	1.49	0.91	0.09	1.83	1.48
8	1.31	1.06	2.25	2.03	1.11	1.22	2.35	1.92	1.13	1.24	2.12	2.14
10	-0.63	-0.48	1.67	2.11	-0.67	-0.40	2.42	1.54	-0.63	-0.24	1.97	1.93
11	0.74	0.16	1.90	2.11	0.51	0.35	2.28	1.79	0.30	0.62	1.97	2.21
13	1.02	0.59	1.52	1.20	0.50	0.97	1.36	1.37	0.70	0.71	1.34	1.34
1 ⁽³⁾	1.08	1.00	1.46	1.39	1.08	0.96	1.78	1.08	1.09	0.86	1.47	1.24
2	-0.70	-0.15	0.32	0.75	-0.38	-0.40	1.28	0.02	-0.23	-0.86	0.66	0.29
3	0.49	0.72	1.73	1.56	0.31	0.88	1.78	1.49	0.70	0.35	1.66	1.52
4	1.65	1.80	2.57	2.36	1.53	1.90	2.50	2.39	1.75	1.71	2.52	2.19
6	0.14	0.69	2.43	2.45	0.44	0.47	2.68	2.24	0.48	0.40	2.46	2.38
7	1.11	1.11	2.27	1.75	1.26	0.96	1.98	1.94	1.20	0.80	2.06	1.62
8	1.16	1.17	2.58	2.31	1.03	1.33	2.55	2.36	1.16	1.18	2.38	2.55
9	1.84	1.91	2.63	2.60	1.68	2.02	2.50	2.72	1.90	1.82	2.61	2.64
10	-0.35	-0.04	2.16	2.22	-0.46	0.06	2.28	2.10	-0.13	-0.27	2.20	2.18
11	0.59	0.31	2.16	1.93	0.05	0.39	1.93	2.14	0.52	0.10	1.99	2.14
12	-0.43	0.13	1.86	1.94	-0.40	0.08	2.05	1.83	-0.21	0.29	1.91	1.90

*significant at $\alpha=0.05$ level

**significant at $\alpha=0.05$ level

(1) : 중봉지역

(2) : 중심사지역

(3) : 어린이 대공원

항목 1 : 일상적인 일에서의 탈피감

항목 2 : 공원 내외의 환경

항목 3 : 사색의 기회

항목 4 : 자연과의 접촉 기회

항목 5 : 공원내 사람들과의 소일

항목 6 : 쾌적한 환경

항목 7 : 변화 있는 새로운 활동

항목 8 :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의 습득

항목 9 : 친한 사람들과의 소일

항목 10 : 위탁시설내의 관리상태

항목 11 : 운동이나 연습의 기회

항목 12 : 공원으로의 이동 및 체류시 경비

항목 13 : 모르는 사람들의 사귀

[표-6] 공원별 인구통계학적 변수간의 nbi와 mi 평균값

항목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nbi		mi		nbi		mi		nbi		mi	
	남	여	남	여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1 ⁽¹⁾	1.77	1.46**	5.93	5.92	1.66	1.58	5.97	5.85	1.61	1.68	5.92	5.96
2					1.53	1.12*	5.61	5.23	1.37	1.40	5.53	5.43
3	1.27	1.11	5.43	5.50	1.15	1.28	5.55	5.36	1.20	1.22	5.47	5.50
4	1.12	1.01	5.38	5.09	1.08	1.05	5.32	5.16	1.07	1.10	5.23	5.43
1 ⁽²⁾	1.47	1.54	5.69	5.76	1.44	1.57	5.82	5.64	1.53	1.38	5.85	5.38*
2					0.50	1.00	5.38	5.11	0.87	0.50	5.24	5.21
3	1.16	0.93	5.14	5.17	0.91	1.06	5.21	5.11	1.04	0.76	5.19	5.07
4	1.20	0.97	5.20	5.13	0.93	1.22	5.14	5.18	1.09	0.93	5.25	4.86
1 ⁽³⁾	1.86	1.80	6.14	5.89	1.85	1.80	6.08	5.92	1.79	1.95	6.04	5.81
2					1.00	0.59	5.29	4.91	0.72	0.86	5.03	5.14
3	0.84	1.19	5.03	5.22	1.05	1.15	5.28	5.08	0.90	1.52	5.00	5.62
4	0.97	1.20	5.22	4.98	1.33	1.00	5.08	5.20	1.08	1.19	5.14	4.86

*significant at $\alpha=0.05$ level

**significant at $\alpha=0.05$ level

(1) : 중봉지역 (2) : 중심사지역 (3) : 어린이 대공원

항목 1 : 가족 항목 2 : 직장동료 항목 3 : 친구 항목 4 : 이웃

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중봉지역의 경우 (i)가족을 제외하면 nb와 m값이 전반적으로 타 공원에 비하여 높으며 (ii)목적지장에 따라 준거집단의 영향력 차이가 다른 공원에 비하여 많이 존재한다. 이는 중봉지역이 가장 high-involvement product이며, 개방되지 얼마 안되는 지역이어서 목적지로 선정시 위험부담(risk)가 큰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방문 결정시 준거집단의 영향력중 정보의 제공과 utilitarian reference group influence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Park and Lessig, 1977).

VI.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Fishbein의 논리적 행위이론을 도시공원의 목적지 선정 연구에 도입하여 특정공원이 목적지로 결정되는 과정과 실제로 그 공원이 방문되는 확률을 추정한 결과 모델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즉, 광주시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공원의 방문은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의도는 공원방문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규범에 의해 형성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태도는 공원방문시 발생할 것으로 믿는 개인의 신념과 그 신념의 평가

를 곱한 합으로, 주관적규범은 중요한 준거집단이 갖는다고 믿는 특정공원 방문에 대한 신념과 그 신념에 동의하고자 하는 정도를 곱한 합으로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공원별 분석의 결과 high-involvement product라 할 수 있는 중봉지역 및 중심사지역에서 제시된 가설이 검증되었으나 나머지 공원은 일부만이 검증되었다. 도시공원이란 일반적으로 low-involvement product이어서 정보처리과정 및 요구기준(Need Association)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일부 가설검증의 실패 원인이라 생각된다. 특기할 사항으로 low-involvement product에 해당하는 공원들은 중요한 주변의 준거집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공원의 방문의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결과로, 이들 공원들은 특정 목적이 있어 그 공원들을 방문하기 보다는 공원방문의 기회가 생겼을 때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도시공원 중에서도 high-involvement product인 곳에서 또는 도시공원의 수준을 넘은 국립, 도립공원의 목적지 선정 연구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의 결과 또한 가장 high-involvement product인 중봉지역에 한하여 제시된

가설이 성립됨을 보여 주고 있다. 사용된 변수중 나머지 공원들인 경우 남자는 태도 요인에 의해, 여자는 주관적규범 요인에 의해 의도가 형성됨이 밝혀져 성별이 목적시장을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로 성별로 recreation의 행태, 참여율, 여가행태에 대한 태도등이 다르기 때문이다(Young, 1983; Kelly, 1980; Gentry and Doering, 1979). b와 e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의한 분석 결과는 공원의 관리자가 공원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특정공원에 대한 신념을 선택적으로 유지 또는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매체나 부로슈를 통한 광고나 弘報(Publicity), 목적시장별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본 연구에서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

1. 모델 자체의 가정

제시된 모델은 여러개의 가정하에서 성립되었다(Ajzen and Fishbein, 1972). 이 중 (i)의도란 행동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ii)예기치 않았던 행동결과와 / 또는 규범적 기대는 행동과 의도간의 상관관계를 낮춘다의 가정이 본 연구의 행동과 의도간의 상관성을 낮추었다고 판단된다.

- (1) 공원이란 상품은 형성된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도란 필요조건만으로는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는 제시된 모델의 중요한 단점이라 생각한다.
- (2) 자료수집 직전에 서석대 및 입석대지역이 개방되어 중봉지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방문의도가 과잉 평가됨으로써 행동과 의도간의 상관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2. 측정상의 문제

- (1) 의도의 측정시 단일 문항(single-item)을 사용하였다(Fishbein and Ajzen, 1975). 그러나, 단일 문항에서는 다문항(multi-

item)에서와 같이 오차들이 평균되어 零이 될 기회가 없어 타당성의 결여가 예상되었다(Ryan and Bonfield, 1975).

- (2) 문헌조사와 전남대 조경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한 결과로 신념(b, nb)의 종류를 결정하였는데 이들은 광주시민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의도와 두개의 주요 변수간의 상관성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된다(Mazis et al., 1975).
- (3) 태도 요인과 주관적규범 요인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두 주요 요인간의 多共線性을 고려하여 결정한 유의수준($p < 0.1$)은 근거가 없다. Ridge regression을 이용하는 것이 다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3. 표본추출상의 문제

- (1) 연구의 특징상 국민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변형된 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지만 수 집된 자료는 광주시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중의 하나가 제시된 모델의 검증이므로 probability sampling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특정 연령층이 과잉 標出된 자료이었으므로 광주시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분석의 경우 분석된 계수의 신빙성은 의문시 된다.
- (2) 공원별 분석시 중봉지역의 방문의도를 가진 응답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일부 공원은 인구통계학적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원별 자료의 자유도 차이를 가져 왔다. 이는 광주시에 한정된 특수한 경우지만 보다 세분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하여는 보다 많은 자료수가 필요하다.

引用 文獻

1. 光州市(1989) 광주교육통계연보.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2. 광주시 동부 교육 구청(1990) 1990학년도 취학 사무 집행요령. 광주시 동부 교육 구청

3. 광주시 서부 교육 구청(1990) 1990학년도 취학 사무 집행요령. 광주시 서부 교육 구청
4. 交通啓發研究院(1988) 長期觀光需要豫測에 관한 研究. 최종보고서. 交通啓發研究院
5. 구 태익(1986) 서울시 도시 공원의 입장객수 변동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金星一(1991) “自然休養地 内の 環境汚染行動에 對한 倫理的 行爲理論의 利用으로”, 韓國林學會誌 80(1) : 20-31
7. 方仁洙(1987) 慰樂公園의 利用後 評價에 관한 研究 : 경주 도투락윌드를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造景學科 석사학위 논문
8. 서울시(1985) 서울시 公園綠地 政策方向 研究. 서울시
9. 吳相洛, 柳東根(1987) 最新 마아케팅論. 東星社
10. 日本觀光協會(1986) 觀光施設造景論. 新學社
11. 趙昌來(1987) 觀光商品의 販賣促進을 위한 마아케팅 適用 方案 研究, 東亞大學校 經營大學院 마아케팅管理專攻 석사학위 논문
12. 趙亨瀘(1990) 韓國 工園의 計劃指標에 관한 調查研究 : 最大日率 및 回轉率을 對象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生態造景學科 석사학위 논문
13. 홍부길(1983) 소비자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4. 洪性灌(1986) “Fort Wayne市 近隣公園에 관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14(1) : 61-79
15. Anderson, D. H. (1980) Displacement of Visitors within the Boundary Waters Canoe Area Wildernes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
16. Ajzen, I. and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 Englewood Cliffs, NJ
17. Ajzen, I. and Fishbein, M. (1972) “Attitudes and normative beliefs as factors influencing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 1-9
18. Assael, Henry(1984)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Kent Publishing Company : Boston, MA.
19. Bearden, William O. and Michael J. Etzel(1982) “Reference group influence on product and brand purchase deci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 183-194
20. Bonfield, E. H. (1974) “Attitude, social influence, personal norms, and intention interactions as related to brand purchase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1 : 379-389
21. Davis, Harry L. and Rigaux, Benny P. (1974)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 51-62
22. Driver, B. L. (1977) “Item pool for scales designed to quantify the psychological outcomes desired and expected from recreation participation”, Unpublished Manuscript, Rocky Mountain Forest and Range Experimental Station, USDA Service Recreation Project. Ft. Collins, CO.
23. Dulany, D. E. (1961) “Hypotheses and habits in verbal ‘operant conditio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 251-23
24. Fesenmaier, Daniel R. (1988) “Intergrating activity patterns into destination choice model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3) : 175-191
25. Fishbein, Martin(196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6(3) : 233-239
26. Fishbein, Martin(1967) Readings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Wiley : New York, NY
27. Fishbein, Martin and Ajzen, Ieck(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 Reading, MA
28. Gentry, J. W. and Doering, M. (1979) Sex role orientation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 102-111
 29. Haider, Wolfgang and Ewing, O. Gordon (1990) "A model of tourist choices of hypothetical Caribbean destinations", *Leisure Sciences*, 12(1) : 33-47
 30. Haley, Overholser(1975) Purchase Influence: Measures of Husband / Wife Influence on Buying Decisions. Haley, Overholser : New Canaan, Conn
 31. Hong, sung kwon(1988) The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Facilities and Recreational Programs on Park Use in Urban Areas. Unpublished D. E. 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32. Iso-Ahola, Seppo E. (1986) "A theory of substitutability of leisure behavior", *Leisure Sciences*, 8(4) : 367-389
 33. Johnson, Richard A. and Wichern, Dean W. (198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34. Kelly, J. R. (1980)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Leisure Sciences*, 3 : 129-154
 35. Manfredi, M. J. (1979) Wilderness Experience Opportunities and Management Preferences for Three Wyoming Wilderness Area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
 36. Mazis, Michael B., Ahtola, Olli T., and Klippel, R. Eugene(1975) "A comparison of four multi-attribute models in the prediction of consumer attitud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 : 38-52
 37. McIver, P. John and Carmines, Edward (1981) Unidimensional Scaling. Sage Publication, Inc: Beverly Hills, CA
 38. McNamara, James F.(1978) "Determining sample size in decision-oriented research studies", *A Journal for School Administrators*, 9(2) : 125-127
 39. Miniard, Paul W. and Cohen, Joel B. (1983) "Modeling personal and normative influence on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 169-180
 40. Neter, John, Wasserman, William, and Kutner, Michael H.(1983) Applied Linear Regression Models. Irwin: Homewood, IL
 41. Park, C. Swan and Lessig, V. Parker (1977) "Students and housewives: differences in susceptibility to reference group influen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 102-110
 42. Riddle, P. K. (1980) "Attitudes, beliefs, behavioral intentions and behaviors of women and men toward regular jogging",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1 : 663-674
 43. Rogenberg, Milton J. (1956) "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 effec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3 : 367-372
 44. Ryan, Michael J. and Bonfield, E. H. (1975) "Fishbein extended model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 118-133
 45. Scheaffer, Richard L., Mendenhall, William, and Ott, Lyman(1986) Elementary Survey Sampling. Duxbury Press : Boston, MA
 46. Unger, Lynette S. and Kernan, Jerome B. (1983) "On the meaning of leisure : an investigation of some determinants of the subjective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 381-392
 47. Westphal, Joanne M. and Lieber, Stanley R. (1986) "Predicting the effect of alternative trail design on visitor satisfaction in park setting". *Landscape Journal*. 5(1) :

- 39-44
48. Wicker, A. W. (1969) "Attitudes vs. actions: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25 : 41-78
49. Wilson, David T., Mathews, H. Lee, and Harvey, James W. (1975) "An empirical test of the Fishbein Behavior Intention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 39-48
50. Young, R. A. (1983) "Toward an understanding of wilderness participation", *Leisure Sciences*, 5 : 339-357
51. Young, Robert A. and Kent, Anne R. (1985)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recreation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2) : 90-106